

한국전쟁에서 중공 지도부의 인천상륙작전 예측과정

曹 上 根*

1. 서 론
2. 중공 지도부의 한국전쟁 정세 판단
3. 중공군 총참모부의 판단
4. 13병단 사령부의 판단
5. 중공 지도부의 전략적 조치
6. 결 론

1. 서 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공 지도부는 1950년 7월 말부터 13병단을 한·만 국경선 일대로 집결시켰다. 이는 적대 국가와는 국경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사상에 기초한 조치였다. 그러나 대전전투(1950. 7. 14~20) 이후 북한군의 공격기세가 저하되고 김일성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사단들이 속속 한반도에 투입되자 중공 지도부는 중공군의 본격적인 참전준비를 위한 정보수집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공 지도부는 한국전쟁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정보원들을 급파했고, 특히 준비된 방어진지인 낙동강 방어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군의 공격기세가 저하되기 시작한 대전전투 이후부터 북한군의 전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공 지도부가 북한군의 전력, 전술에 대해 분석하여 13병단의 개입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수집 절차의 일환이었다.¹⁾ 실제로 중국의 공간사,²⁾ 한국전쟁 당시 작전문서,³⁾ 13병단 참모요원들의 회고록⁴⁾ 및 여러 연구자료⁵⁾ 등에서 당시 중공 지도부의 정보수집활동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 1) 朱建榮, 『毛澤東의韓國戰爭』(東京: 岩波書店, 1991);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각수(역)(서울: 역사넷, 2005), p. 112.
- 2) 軍事科學院, 『中國人民志願軍 韓國戰爭史』(北京: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1987); 박동구(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2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軍事科學院,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北京: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1987);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 抗美援朝戰史』(서울: 세경사, 1991).
- 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전쟁기 중공군 문서』(춘천: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행자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관련 중국자료선집 한국전쟁과 중국 I, II』(서울: 행자부, 2002); 毛澤東, 『毛澤東軍事文選 第6卷』(北京: 中國人民解放軍戰士出版社, 1993); 李捷, 『毛澤東与抗美援朝』(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0).
- 4) 彭德懷, 『彭德懷軍事文選』(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88); 彭德懷, 『彭德懷自述』(北京: 人民出版社, 연도 미상); Luo Yinwen, *Deng Hua Jiangjun zhuang* (Beijing: Zhong-Gong Zhongyang Dangxiao Chubanshe, 1995);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再版(北京: 解放軍 文藝出版社, 1991); 홍인표(역), 『중국이 본 한국전쟁: 인해전술의 전쟁기록』(서울: 고려원, 1992); 楊鳳安·王天成, 『駕妮朝鮮戰爭的人』(北京: 中共黨校出版社, 1993).
- 5) 朱建榮, 『毛澤東의韓國戰爭』(東京: 岩波書店, 1991); 서각수(역),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서울: 역사넷, 2005); 葉雨蒙, 『黑雪: 中國의朝鮮戰爭參戰秘史』(東京: 同文館, 1990); 오정운(역), 『한국전쟁(黑雲)』(서울: 독서당, 1993); 쉰이, 데이빗,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1949년 5월부터 1951년 7월까지(I)”, 『전략연구』 통권 35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5년). 이 연구들은 중공군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한 경위와 절차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이 기습이었는가와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조언해준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사실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정작 중공 지도부의 인천상륙작전 예측과정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정보수집 및 처리 절차를 동·서 냉전의 시각으로 평가하여 모택동이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한 것을 공산주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격화 현상으로 평가절하(平價切下)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공개된 중국의 공간사와 작전문서를 통해 이념이 아닌 군사적 관점에서 중공 지도부가 어떤 절차와 채널을 통해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예측했는지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2. 중공 지도부의 한국전쟁 정세 판단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공 지도부의 관심은 한반도로 집중되었다. 전황은 북한군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중국은 역사적 분쟁 지역인 동북지역으로 한국전쟁의 불씨가 전이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중공군 총참모부는 6월 30일에 정보요원들을 북한에 파견하여 급변하는 전쟁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⁶⁾

이 정보요원들은 모두 고급 군사 정보원 출신으로 차이칭원(대리 대사)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⁷⁾ 이들은 7월 10일에 평양에 도착하여 북한 외상인 박헌영과 김일성을 만나고 곧바로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다. 차이칭원은 북한 지도부와 수시로 만나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군의 전력, 전

6)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年譜(1949-1976)』(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77), 上卷, p. 197.

7) 서각수, 앞의 책, p. 110. 대리 대사인 차이칭원 외 6명은 니웨이팅(참사관), 쉘중화(참사관), 장형예(일등 서기관), 주광(무관), 왕다강(부무관), 류상원(부무관)이다.

술 등을 분석하여 베이징에 보고했다. 그 결과 중공 지도부와 중공군 총참모부는 북한군의 전력과 전투지속능력을 지속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7월 10일, 미 24사단에 이어 미 25사단이 부산에 도착하여 한반도에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미 6월 28일에 작전을 개시한 미 공군과 해군의 폭격과 포격으로 북한군의 병참선은 심대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그 결과 북한군의 공격기세(攻擊氣勢)는 저하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북한군의 전력과 전투지속능력은 저하되고 있었지만 김일성은 차이칭원과의 회담에서 전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었으며 미군의 대규모 참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⁸⁾ 이로 인해 중공 지도부는 김일성의 작전지도에 대해 불신하게 되었으며, 중공 지도부로 하여금 한국전쟁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를 대비케 했다.

그 결과 중공 지도부는 7월 7일에 국방군사회의를 개최하여 동북 국경을 지키고 북한군을 원조할 동북변방군 창설을 결의하고, 7월 13일에는 '동북변방군 결성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할 중공군을 새롭게 편성했다.⁹⁾ 새롭게 편성된 동북변방군은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한·만 국경 일대로 집결하기 시작했으며, 그 규모는 4개 군(13집단군 예하 38·39·40군), 3개 포병 사단(1·2·8사단) 및 4개 고사포 연대로, 총 25만 5천 명이였다.¹⁰⁾

동시에 중공 지도부는 한반도, 미국 및 일본에서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중공군 총참모부, 13병단 사령부, 외교부에게도 자체적으로 한국전쟁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중공 지도부의 이런 조치들은 분명히 김일성의 예상과는 달리 미 지상군

8)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과 전투근무지원』(대전: 육군본부, 1994), pp. 283-284. 병참선의 신장, 유엔 공군의 군수지원차단작전 및 미 지상군의 증원으로 북한군은 7월 중순에 실시된 대전지구 전투부터 그 공격기세가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했다.

9) 張布, “彭德懷受命率師抗美援朝的前前後後”, 『中共黨史資料』31號(1989年 10月), p. 118.

10)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再版(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 홍인표(역), 『중국인본 한국전쟁: 인해전술의 전쟁기록』(서울: 고려원, 1992), p. 2.

의 대규모 참전으로 한국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7월 3일에 투입된 미 24사단에 이어 미 25사단(7월 10일)과 미 1기병사단(7월 18일)이 한반도에 전개한 시간은 15일밖에 되지 않았다.¹¹⁾

중공 지도부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은 북한군의 공격기세가 점차 저하될 것이고, 신장된 병참선과 유엔군의 군수지원차단작전으로 북한군은 조만간 작전한계점¹²⁾에 도달하여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중공 지도부는 동북변방군을 7월 중순부터 한·만 국경 일대로 집결시켰으며, 예하 조직들을 활용하여 한국전쟁의 정세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3. 중공군 총참모부의 판단

(1) 1950년 8월의 전장 상황

1950년 7월 20일, 중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이 북한군에게 함락되자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은 한반도 최후의 보루인 부산을 지켜내고 공세 이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8월 1일부로 전 부대를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미 90%의 영토를 점령한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조만간 유엔군이 형성한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11)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대전 : 육군본부, 2004), pp. 457-458.

12) 김정필, 『군사전략·작전·전술』(서울 : Banbook, 2003), p. 112. 작전한계점(Culminating Point)은 공격 또는 방어부대가 전투력의 저하, 전투원의 피로, 진요 물자의 결핍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나 그 시기를 말한다.

〈표 1〉 8월 초 피아의 전투편성과 전력비교¹³⁾

유엔군		작전지역		북한군	
국군 직할	국군 3사단	6,489명	동해안~영덕	5사단, 766유격연대	7,500명
국군 1군단	수도사단	5,778명	청송~구미동	12사단	6,000명
	국군 8사단	8,154명	구미동~상아동	8사단	8,000명
국군 2군단	국군 6사단	6,570명	상아동~낙정리	1사단	9,500명
	국군 1사단	7,660명	낙정리~왜관	13사단	9,500명
				15사단	5,000명
				105전차사단(40대)	3,000명
미 8군	미 1기병사단	10,276명	왜관~현풍	3사단	6,000명
	미 24사단	9,685명	현풍~남지	4사단	7,000명
	국군 17연대	1,726명		2사단(예비, 김천)	7,500명
	미 25사단, 5연대 전투단	16,928명	남지~진동리	6사단 (차량화·치안연대)	5,000명
8개 사단, 2개 독립연대 : 총 73,273명			총 전투력	11개 사단, 1개 독립연대 : 73,000명	

북한군은 〈표 1〉에서처럼 11개 사단을 투입하여 총공세를 펼쳤으나 유엔군의 방어선은 뚫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엔 공군과 해군의 군수지원차단작전¹⁴⁾으로 북한군의 보급품은 하루 400톤 정도만이 낙동강 전선에 도착하

1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상)』(서울 : 국방부, 1996), p. 301. 당시 북한군의 배치를 분석해 봤을 때 북한군은 전투력을 분산하여 낙동강 방어선 전 전선에서 공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급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력을 분산 운용한 것은 명백히 북한군의 전술적 실책이었다.

14)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 p. 254. 유엔 공군은 철원-서울-안동으로 이어지는 북한군의 보급로에 폭격을 실시하여 북한군의 보급상황을 악화시켰다. 1950년 9월 21일에 투항한 북한군 13사단 참모장은 “북한군 3사단의 경우 보급부족으로 인해 병력은 겨우 1,500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통신이 두절된 가운데 전차, 화포 등 중요 전투장비의 고장 및 파괴와 포탄의 부족 등으로 공격은 고사하고 방어선을 유지할 능력도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처럼 유엔 공군의 군수지원차단작전은 북한군의 전력을 저하시키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여 예하 부대들의 전투력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⁵⁾ 또한 북한 전선 사령부가 병력을 집중하지 않고 낙동강 전 전선에서 분산 공격(分散攻擊)하는 전술적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북한군 예하 부대들의 전투력은 하루가 다르게 저하되었으며, 전장의 주도권은 서서히 유엔군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실제로 당시 유엔군 지상군과 북한군의 전력비를 분석해 보면 <표 1>과 같이 1:1 정도였다. 하지만 제공권과 제해권을 유엔군이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북한군은 보급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표 2>와 같이 더욱 커졌다.

이는 북한군이 이미 작전한계점에 도달하여 공격에서 방어(지연전)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며, 유엔군은 공세이전¹⁶⁾의 여건이 조성되어 반격작전으로

<표 2> 9월 초 피아의 전투력비교¹⁷⁾

구분	병력	전차	야포	항공기	함정
유엔군	176,000	500	400,000	5공군	7함대
북한군	98,000	100	250,300	없음	없음
비율	2:1	5:1	1.5:1	.	.

15) 위의 책, p. 171. 8월 초 북한군의 병참선은 300km로 신장되어 있었다. 북한군은 전선 지역 보급을 위해 보급전담 사단인 36사단을 김천에 창설하고, 주민 36만 명을 강제로 동원하여 1인당 20kg의 보급품을 하루밤에 20~30km씩 릴레이식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이동시켰다. 하지만 낙동강까지 진출하면서 북한군은 이미 5만 6천 명의 병력손실을 입었으며, 전차도 80% 이상이 파괴되었다. 또한 일선 부대의 전투력은 50~60%로 저하되어 있었다.

16) 김정필, 앞의 책, p. 15. 공세이전(Counteroffensive)은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전세를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방어에서 대규모의 공세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반격과 동의어이다. 공세이전의 목적은 적의 공세를 저하시키고 적 부대를 파괴하는 데 있다.

1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상)』(서울:국방부, 1996), p. 344. 1950년 8월 22일, 국군 7사단이 창설되고, 8월 30일에는 영국 27여단이 부산에 도착함으로써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투력 차이는 더욱 벌어졌다.

전환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전술적으로 공자와 방자의 비율이 3:1일 때 공격이 가능한데, 당시 피아간의 전투력을 비교해봤을 때는 방자인 유엔군의 전투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유엔군 지상부대는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준비된 방어진지에서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2) 중공군 총참모부가 판단한 인천상륙작전

북한군의 8월 공세가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자 중공군 총참모부의 정세 판단은 점점 비관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왜냐하면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 내로 계속해서 병력과 물자를 집중시키고 있었지만 북한군은 유엔군의 군수지원차단사격으로 보급지원을 받지 못해 공격기세가 급속히 저하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중공군 총참모부는 유엔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할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유엔군의 반격작전 형태, 시기, 규모 등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공군 총참모부는 유엔군이 북한군의 의표를 찰라 공격해 올 경우를 크게 걱정했다.¹⁸⁾

이에 중공군 총참모부 작전실은 8월 초부터 미 정부, 유엔군 사령부, 미 8군 사령부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유엔군이 채택할 수 있는 반격작전의 형태를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의 작전선(Line of Operation)이 북한군의 후방으로 지향될 것이며, 그 형태는 2개 사단 규모가 투입되는 상륙작전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당시 작전실을 총 지휘한 사람은 작전실 주임인 레이잉푸(雷英夫)였고, 그는 아래와 같이 6가지 이유로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예상했다.¹⁹⁾

① 미군과 한국군의 13개 사단이 부산의 삼각주에 있는 좁은 진지에 배치

18) 서각수, 앞의 책, pp. 163-164.

19) 權延赤, “他和共和國的締造者們”, 『時代文學』 5月號(1989年), pp. 16-17.

되어 있는데, 진지를 고수하면서 철수도, 증원도 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조선 인민군 주력부대 전체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 ② 미군은 일본에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 1사단과 7사단(나중의 10군)을 집결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을 한국전쟁에 증파할 기색이 없이 전투훈련만 계속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전장을 펼칠 준비의 조짐이라고 생각한다.
- ③ 지중해와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과 영국의 많은 함선들이 대한해협에 집결 중이다. 이것도 상륙전을 통해 전쟁을 확대하려는 징후다.
- ④ 한반도는 남북이 길고, 동서로는 폭이 가장 좁은 곳이 170킬로미터 남짓밖에 안 되는 곳도 있다. 그 중에서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 적에게는 전략적 가치가 가장 크다.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면 북한군의 수송과 후퇴의 길이 막혀 인민군을 포위할 수 있게 된다.
- ⑤ 맥아더와 그의 8군은 적 후방 상륙작전에 익숙하며, 태평양전쟁 중에 대일전에서의 경험이 있다. 특히 상륙작전은 해군과 공군의 우세를 발휘할 수 있는 작전이다. 만약 실패하더라도 큰 손해는 없다.
- ⑥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진격한 것은 승리가긴 했지만, 보급선이 길어지고 병력이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후방이 비게 되었다. 이에 비해 적군은 집중 방어를 하게 되어 반격할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중공군 총참모부 작전실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²⁰⁾

1) ②항 분석

우선 ②항의 경우, 맥아더 장군은 1950년 7월 22일에 작전명 '블루하트'라는 상륙작전을 계획하였으나 전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무효화되었다. 이

20) ①항과 ⑥항은 2장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때 상륙작전에 투입될 부대는 미 해병 5연대전투단과 미 1기병사단이었다. 미 1기병사단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북한군의 공격으로 대전 방어선이 무너지자 7월 18일에 한반도로 투입되었다.

이후 맥아더 장군은 '크로마이트 작전'을 준비하면서 미 7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국군 7,000명을 일본의 요코하마로 보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해병들을 고베로 모으기 시작했다.²¹⁾ 이 시기가 8월 11일경이었으므로 중공군 총참모부 작전실은 일본으로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일본으로 국군 7,000명과 미 해병 1개 연대 규모가 증원된 사실은 중공군 총참모부 작전실로 하여금 유엔군의 반격작전의 형태가 상륙작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2) ③항 분석

③항의 경우, 인천상륙작전(병력, 장비 수송 및 기만작전)을 위해 미국 및 영국 해군의 함정들이 8월 초부터 동원되었다.

8월 첫째 주에 거의 14,000명의 해병 정규군과 예비군이 캠프 펜들턴에 도착했고 8월 10일부터 해병들을 태운 수송선과 호위함들이 일본 고베를 향해 출발했다.²²⁾ 또한 8월 30일 영국 27여단이 부산에 도착했으므로 수송선(병력)을 호위하기 위한 영국 해군 또한 한국전쟁에 증파되었다.²³⁾ 이처럼 8월 당시 부산항, 일본의 요코하마 항, 고베 항에 대규모 수송선과 호위함들이 도착했으므로 ③항 또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 1945-1951』,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pp. 130-132.

22) Rottman, Gordon L., *Inch'on 1950* (Oxford: Osprey, 2006); 김홍래(역), 『인천 1950』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06), pp. 21-25.

23) 최용호, 『끝나지 않은 6·25전쟁 이야기, 그때 그날』(서울: 삼우사, 2005), p. 105. 영국 해군은 최초 7월 7일에 한국전쟁에 투입되었다.

3) ④항과 ⑤항 분석

④항과 ⑤항의 경우, 맥아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번의 상륙작전을 실시했는데, 그의 상륙작전 스타일은 적이 가장 원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여 보급선을 끊고 적을 완전히 포위하여 섬멸하는 것이었다.²⁴⁾ 즉 맥아더 장군은 상륙장소의 여건보다는 상륙 후 적의 철수로와 병참선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더 중요시했다.²⁵⁾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서 그가 수행한 상륙작전을 살펴보면 상륙지점의 여건이 그다지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상륙 후 적을 쉽게 양분하거나 상호 증원을 저지할 수 있었다.

중공군 총참모부 레이잉푸가 8월 23일에 모택동과 주은래에게 보고한 내용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맥아더 장군의 상륙작전 방법에 대해서 강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맥아더는 태평양 전쟁 시 마누스와 라스네거라스 섬 공격에서 일본군 정예세력 바로 맞은편(방어배치가 허술한 후방지역)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일본군 방어체계를 순식간에 와해시켰습니다. 동시에 루손 섬 공격 때에도 주력부대인 제1군과 14군을 링가엔 만에 투입하여 마닐라로 진격했고, 또한 다른 주력부대를 수빅 만 서북의 해안과 마닐라 만 남쪽의 나스 그부 만으로 상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파단반도²⁶⁾와 커레이지다르 섬²⁷⁾

24) Ridgway, Matthew B., *The Korean War* (New York : Doubleday, 1967): 『한국전쟁』, 김재관(역)(서울 : 정우사, 1981), p. 47; Ikujiro Nonaka, *The Leadership of Winners* (Tokyo : Nihon Keizai Shimbun, 2005): 『전략의 본질』, 이해성(역)(서울 : 비즈니스맵, 2006), p. 20. 맥아더 장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총 11회의 상륙작전을 지휘한 바 있는 베테랑이었고, 1945년 9월 8일에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 1개 연대를 인천으로 상륙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일본군은 1894년과 1904년에 인천에 상륙하여 중국을 침공하기 위해 압록강을 넘어 북진한 전례가 있다.

25)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s* (New York : McGraw Hill, 1964), pp. 349-350. 맥아더는 서울을 신속히 점령하여 적의 병참선을 차단하기만 하면 낙동강 방어선의 적 주력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맥아더 장군은 미 8군과 미 10군단의 연결작전(Link-up operation)에 관계없이 인천상륙작전 자체만으로도 북한군을 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을 점령하여 일본군의 퇴로를 차단하였고, 이후 맥아더는 정면과 후방에서 동시에 일본군을 몰아붙이며 마닐라로 진격했습니다.”²⁸⁾

이처럼 중공군 총참모부 작전실의 판단은 적, 지형, 전선 상황, 인물성향을 모두 고려한 분석이었으며, 현재의 작전수행절차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공군 총참모부가 유엔군의 상륙지역을 인천으로 예측한 것은 자체 정보 수집 및 처리절차에 의해 도출해낸 결과인 것이다.

4. 13병단 사령부의 판단

(1) 한반도에서의 정보수집 활성화

13병단 사령부²⁹⁾도 동북변방군 이동계획에 따라 1950년 7월 27일에 광저우를 떠나 8월 4일 안동에 도착했다. 13병단 사령부는 안동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전쟁의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당시 북한군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유엔군에게는 공세이전의 여건이 형성되었고, 만약 북한군이 유엔군의 어떠한 형태의 반격작전을 허용하여 와해된다면 한·만 국경선 일대에 집결 중인 13병단이 서둘러 한국전쟁에 참전해야 했기 때문이다.³⁰⁾

26) 수빅 만과 마닐라 만 사이에 있는 작은 반도.

27) 파단 반도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 마닐라 만으로 입출항하는 배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목 지점.

28) 葉雨蒙, 『黑雪 : 中國의朝鮮戰爭參戰秘史』(東京 : 同文館, 1990): 『한국전쟁(黑雲)』, 오정운(역)(서울 : 독서당, 1993), p. 18.

29) 13병단 사령부는 덩화(사령관), 라이훤주(정치위원), 제페이란(참모장), 두펑(정치부 주임), 홍쉐즈와 한센추(부사령관)로 구성되어 있었다.

30) 쑤이, 데이빗, 『중공군의 한국전쟁(VII) : 한국전쟁 개입을 위한 준비(1950년 1월~9월

그 결과 13병단 사령부는 전투준비의 일환으로 자체 및 정부의 정보수집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에 대한 지형정보를 획득하고,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력과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42군의 참모장교인 Song Zhonghan과 신화사 특파원이었던 Lui Zhiliang은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북한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까지 가서 정확한 전장상황을 파악했다.³¹⁾ 이들은 실시간 변화하는 유엔군과 북한군의 상황을 13병단 사령부에 보고했고, 13병단 사령부는 이를 토대로 유엔군의 반격작전을 판단하기 위한 워 게임(War Game)을 진행할 수 있었다.

7월 말에는 Gao Gang과 동북군구 사령관의 승인하에 Wu Ruilin이 지휘하는 정찰팀이 열차 승무원으로 위장하여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5일간 북한의 북서지역(신의주, 평양, 희천, 강계, 만포)을 정찰했으며, 정찰 결과는 동북군구 사령부에서 보고서와 지도로 만들어져 동북변방군 연대급 이상 부대에 배포되었다. 이 정보 또한 13병단 사령부가 유엔군의 차후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³²⁾

또한 중국 중앙정보부에서 7월 10일에 평양에 파견한 차이칭원 외 6명이 수집한 정보도 13병단 사령부가 유용하게 사용했다. 왜냐하면 차이칭원이 지휘하는 정보요원 중에는 42군 지휘부의 정치군관인 Wang Dagang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Wang Dagang은 동시에 북한주재 대사관부 육군 무관으로도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13병단 사령부에 보고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의 전장 정보는 중국 공산당 정보시스템(한반도에서 활동

하고 있는 중국 비밀요원), 한반도 내의 중국인(약 20만 명으로 추산), 신화통신 특파원, 중공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는 북한군³³⁾을 통해서도 수집되었으므로 13병단 사령부는 한국전쟁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³⁴⁾

이와 동시에 Wang Dagang은 한반도 군사지도(1 : 50,000) 50세트를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획득하여 중공군 총참모부에 전달했다. 또한 그와 다른 대사관부 육군 무관들은 서울에 있는 중국 공산당 비밀요원들(Wang Yilun과 그의 조카, Ding Shenglie³⁵⁾ 등)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공산당 조사부에서 한국전쟁 조사의 목적으로 파견되었다. 이들 중 Ding Shenglie의 조카는 인천으로 파견되어 정보수집활동을 시작했고, Wang Yilun은 Ding Shenglie의 도움으로 8월 21일과 22일 사

3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대전 : 육군본부, 2004), pp. 19-21. 김일성의 특사인 김일은 중국을 방문하여 모택동 및 주은래 등과 연례 회담으로 김일성, 스탈린 간에 합의된 '한반도 무력통일방안'을 협의하고, 중공군에 소속되어 있는 한인사단을 북한군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마무리 지었다. 중공군 소속의 한인사단은 1949년 7월부터 북한군으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소련에서 북한군으로 전환된 인원, 시간, 병력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1947년 7월 말	1947년 8월 말	1949년 초	1950년 5월	?
부 대	중공군 166사단	중공군 164사단	스탈린그라드 참전부대	중공군 15사단	중공군 2개 연대
지휘관	방호산	김창덕	?	전우	?
규 모	1만 명	1만 명	5천 명	1만 명	?
개 편	북한군 6사단	북한군 5사단	?	북한군 12사단	북한군 1·4사단 배속
총	약 40,000명으로 추정 : 전체전력의 1/3 이상				

위의 표를 분석해봤을 때 북한군의 초기 전력의 1/3이 중공군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병력들이다. 중공 지도부에서 파견한 정보원들은 이들에게서 북한군의 전력과 유엔군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했고, 곧바로 중공 지도부로 보고되어 중공 지도부가 13병단의 투입시기, 규모, 작전방침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략연구』 통권 41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7), pp. 218-219. 한반도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던 차이칭원은 "북한군은 1950년 7월 21일 대전전투가 끝난 이후 더 이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해군력과 공군력 없이 좁은 반도에서 긴 시간 동안 적에 대항하는 것은 북한군에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고했다.

31) 쉰이, 데이빗, 『중공군의 한국전쟁(VI) : 한국전쟁 개입을 위한 준비(1950년 1월~9월 1)』, 『전략연구』 통권 40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7), p. 187.

32) 위의 논문, p. 188. 이 정보는 지원군 사령관인 팡덕회도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다고 한다.

34) Westad, O. A. *Brothers in Arms: The Rise and Fall of the Sino-Soviet Alliance, 1945-1963*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3.

35) Ding Shenglie은 조선측으로 차후 중국 공산당 조사부 제8국장이 된다.

이에 한국의 유명 인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그 결과 Wang Yilun은 한국인들로부터 유엔군이 9월의 유일한 만조인 15일에 인천으로 상륙할 것이라는 정보를 획득했고, 곧바로 중국 대사관을 통해 북경으로 보고했다.³⁶⁾

이 정보는 북경뿐만 아니라 13병단 사령부, 동북군구 사령부에도 동시에 전달되었다. 그 결과 13병단 사령부는 유엔군의 여러 상륙예상 지점 중에서 인천을 집중할 수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다.

(2) 13병단 사령부가 판단한 인천상륙작전

13병단 사령관인 덩화는 위의 정보들을 기초로 두 차례에 걸쳐 군사위원회에 유엔군의 상륙작전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첫 번째 보고서는 그가 광저우를 출발하기 전에 제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군이 한반도 중부지역에 군대를 상륙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북한군은 낙동강 주변에서의 공격과 서해안에서의 상륙작전에 대한 방어를 동시에 감당할 능력이 없다.”³⁷⁾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1950년 8월 31일에 제페이란(참모장)이 기초하고 덩화, 홍쉐즈가 연명한 것으로 주더 해방군 총사령관 앞으로 보내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활동 중인 정보요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8월 말까지의 북한군의 전력과 상황을 분석한 후, 사령부 참모요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결론지은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6) 앞의 논문, pp. 191-192.

37) Luo Yinwen, *Deng Hua Jiangjun zhuang* (Beijing : Zhong-Gong Zhongyang Dangxiao Chubanshe, 1995), p. 190.

“북한군에게 적군 소멸의 기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군의 보급선이 과도하게 확장되었고, 철도와 차량이 미국 공군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병참공급이 절박하게 되었다. 게다가 제한된 병력은 해안지역과 후방까지 분산, 배치되어 있고, 미군은 증강되고 있다. 미군은 북한군의 후방을 소규모 병력으로 교란시키면서 전 병력으로 북진하거나,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주력을 소수 전력으로 견제하면서 대규모로 북한군 후방에 상륙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북한군은 앞뒤로 공격을 받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³⁸⁾

당시 13병단 정치부 주임이었던 두핑도 당시 유엔군의 상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在志援軍總部』라는 책에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은 적군을 분할하여 격퇴하고 섬멸 작전을 행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향후 적군이 취할 수 있는 반격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력의 일부를 연안의 후방 수개의 장소에 상륙시켜 교란과 견제 전법을 쓰는 동안, 주력은 현재 위치로부터 철도와 국도를 따라 북상하여 진격해 올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수의 병력이 현재의 위치에서 응전하는 사이에 주력이 후방(평양 또는 서울 지역)에 대거 상륙하여 전후에서 협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군의 처지는 극히 곤란해질 것이다.”³⁹⁾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8월 말 북한군의 전력이나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13병단 사령부가 유엔군의 반격작전의 형태,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엔군의 상륙지점을 서울이나 평양 지역으로 명시한 것은 13병단 사령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수많은 워 게임(War Game)을 통해 염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38) 위의 책, pp. 194-195.

39) 杜平, 『在志援軍總部』(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9), p. 180.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상륙작전이 적에게 최대한 많은 심리적, 물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망치와 모루(Hammer and anvil) 전법⁴⁰⁾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13병단 사령부가 서울이나 평양 지역을 유엔군의 상륙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으로 예측한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8월 말 북한군의 전력은 이미 작전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으며, 후방 예비대를 보유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남동쪽 끝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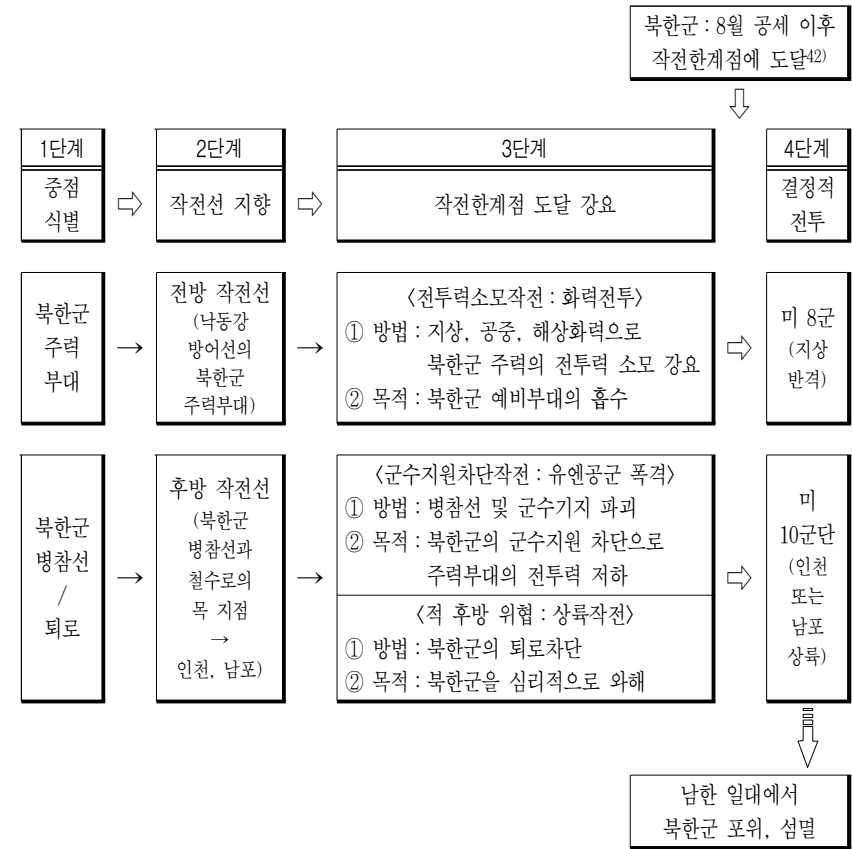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지고 있던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 주력의 전투력을 계속 소모시키면서 일부 전력을 전환하여 북한군의 후방으로 상륙하는 것은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어찌면 당연한 발상일 수도 있다.

더욱이 북한군은 대부분의 전력을 낙동강 전선에 집중하여 후방 예비대를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13병단 사령부의 입장에서는 제해권과 제공권을 가진 유엔군이 인천 또는 진남포에서의 상륙작전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당시 13병단 사령부가 판단한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작전술 차원⁴¹⁾에서 단계화하면 [그림 1]과 같다.

40) 강신철, 『알렉산더 대왕의 망치와 모루 전술 : 합동과 제병협동의 뿌리를 찾아서』, 『군사연구』 120호, 육군본부, 2004, pp. 357-358. 망치와 모루(Hammer and anvil) 전법은 기동전의 대표적인 전술로써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BC359-336)가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이다. 그는 개별 전투요소의 통합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공격전술의 기본개념인 '망치와 모루'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한 인물이다. 그는 에파미너다스의 사선진 전법(병력을 우익 또는 좌익에 집중 배치한 전투대형으로 기원전 371년 류크트라 전투에서 테베군이 최초로 사용)으로부터 주공과 조공의 개념을 도입해 병력을 나누어 운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기병을 주공부대로 보병을 조공부대로 운용했다. 즉 기병으로 하여금 망치 역할을 하면서 적을 포위하도록 하고, 보병에게는 기병 공격을 돕기 위해 모루 역할을 맡겨 적을 붙잡아 놓도록 했다.

41) 여기서 작전술을 언급하는 이유는 작전술의 구성요소로 어느 작전계획을 분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작전술의 여러 구성요소 중에 중점(Center of Gravity), 작전한계점(Culminating Point), 작전선(Line of Operation) 세 가지로 한정하여 당시 중공 지도부 및 13병단 사령부가 파악한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 작전술 차원에서 분석한 유엔군의 상륙작전 절차



즉 13병단 사령부 역시 총참모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지형, 피아간의 전력 및 상황을 분석하여 유엔군의 반격작전의 형태가 상륙작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고, 적극적인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유엔군의 상륙지점을 인천과 평양으로 압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42) 송인영, 『전쟁사Ⅱ』(서울: 선코퍼레이션, 2000), p. 372.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북한군의 8월 공세가 종료된 8월 말에 북한군이 공격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5. 중공 지도부의 전략적 조치

중공 지도부가 유엔군의 반격작전 가능성을 최초로 인지한 시기는 대전 전투 이후 북한군의 공격기세가 현저히 둔화된 1950년 7월 중순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미 지상군의 대규모 증원 가능성을 배제한 채 전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중공 지도부는 한국전쟁의 불씨가 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 지상군의 증원으로 한국전쟁의 상황이 급반전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동북변방군을 한·만 국경선 일대로 집결시켰다.

중공 지도부의 우려대로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미 지상군 2개 사단이 추가적으로 증원되자 북한군의 공격기세는 현저히 둔화되었고, 그 결과로 인해 북한군의 8월 공세는 별다른 성과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중공 지도부는 한반도에 정보요원들을 파견하여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력과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기 시작했다.⁴³⁾ 왜냐하면 북한군은 이미 작전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내심 유엔군이 반격할 차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중공군 총참모부, 13병단 사령부, 외교부도 정보원들이 보고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전쟁의 추이와 유엔군의 차후 행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은 유엔군의 반격작전이 상륙작전이 될 것이며, 상륙 가능 지점은 인천 또는 진남포가 될 확률이 높다는 뜻밖의 보고서를 중공 지도부에 제출하게 된다.

특히 1950년 8월 23일 중공군 총참모부 작전실 주임인 레이잉푸가 유엔군의 상륙작전 가능성을 6가지 근거로 설명하자 모택동은 “일리가 있고 매

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모택동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명령을 내렸다.⁴⁴⁾

- ① 정보 부분은 조선과 미국, 영국, 일본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라.
- ② 우리의 견해를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통보하여 그들이 참고하도록 하라.
- ③ 동북의 제 13집단군은 준비를 가속화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즉각 출동 가능하도록 대기하라.

8월 말 북한의 군사사절단이 9월 공세 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때 모택동은 레이잉푸의 보고를 근거로 하여 이상조 단장에게 한반도의 지도를 보면서 “중부지방은 인천에서 원산까지 허리가 좁은데 이곳에 적군이 상륙해서 차단할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나?”라고 묻자 이상조는 “우리는 그런 가능성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다.⁴⁵⁾ 그러자 모택동은 이상조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⁴⁶⁾

- ① 북한군이 낙동강 선에서 한 달이나 공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은 유엔군이 계속 증강되고 있고,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② 유엔군의 새로운 공세는 상륙작전 형식이 될 것이며, 상륙지역은 인천 또는 남포가 될 것이다.
- ③ 이 시점에서 북한군은 유엔군의 공세에 대비해 축차적인 저지 진지를 준비하고, 유엔군의 인천 또는 남포 상륙에 대비해 후방 예비대를 보유해야 한다.

43) 유상철, 『저우언라이 평전』(서울: 베리타스북스, 2007), p. 17. 중국 지도부는 1950년 7월부터 한반도의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요원들을 한반도에 파견했다. 주은래(周恩來)는 지형조사를 통해 한반도가 상륙작전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모택동에게 보고했다.

44) 서각수, 앞의 책, p. 166.

45)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 국방군사연구소, 1999, p. 248; 이상조-황용주 대담, “김일성은 모택동의 후퇴 충고를 묵살했다”, 『월간중앙』 1990년 8월호, 중앙일보, 1990, pp. 292-293.

46) 孫寶昇, “毛澤東會預言美軍可能性在仁川登陸”, 『軍事歷史』 30號(1990年 10月), p. 13.

하지만 이상조가 북한에 복귀한 9월 8일에 김일성에게 “모택동이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으니 작전상 낙동강 방어선에서 주력을 후퇴시켜 매복에 의한 유인섬멸전략을 취하라는 조언을 했다”⁴⁷⁾고 보고했으나, 김일성은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⁴⁸⁾ 왜냐하면 김일성은 미군의 반격이 낙동강 전선에서 시작할 것이며 미군이 대규모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기간 내에 북한군 후방에 대규모의 상륙작전을 실행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⁴⁹⁾ 즉 김일성은 영토점령의 환상에 빠져 북한군이 이미 작전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낙동강 방어선을 향해 초과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은 모택동의 조언을 경시한 채 후방에 배치된 예비부대를 투입하여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던 것이다.⁵⁰⁾

레이잉푸의 보고에 이어서 8월 31일에는 13병단 사령부에서 한국전쟁 정세를 분석한 보고서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 보고서는 ‘적과 우리의 병력 대비, 조선의 지형, 후방 공급 문제, 적의 의도, 우리의 작전방침, 부대의 장비와 훈련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고,⁵¹⁾ 특히 13병단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유리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다. 즉 13병단 사령부는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13병단 사령부의 보고서에는 “동북변방군이 한국으로 들어갈 가장 유리한 시기는 적이 상륙한 다음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깊이 진격했을 때이다.

47) 김광수, 앞의 논문, p. 248.

48)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Lawrence, KS: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p. 72-73.

49) 軍事科學院, 『中國人民志願軍 韓國戰爭史』(北京: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1987): 오규열(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1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 178.

50)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앞의 책(6·25전쟁의 실패사례와 교훈), pp. 199-200. 9월 13일, 김일성은 경인지역에 남겨 두었던 18사단 87연대와 849반땅크연대마저도 낙동강 전선에 투입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51) 齊德學, “記實並不實 評 黑雪 出兵朝鮮記實”, 『軍事歷史』 6號(1989年), p. 40.

적이 일단 반도의 폭이 넓어지는 북부 지역에 진입하면 적의 전선은 넓어지고, 병력이 분산될 것이며, 유엔군 공군과 해군에 의한 위협은 감소되면서, 우리의 보급선은 단축되기 때문에 군사적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유리하다”⁵²⁾라고 적혀 있었다.

이 보고 내용은 모택동이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북한군의 위기를 감지한 모택동의 입장에서는 유엔군의 상륙작전이 실시되기 전에 13병단을 38선 부근까지 투입하여 철수하는 북한군을 엄호해야만 했다. 하지만 중공군은 아직 공군이 조직되지 않았고, 13병단의 전투준비도 부족한 상태였다.⁵³⁾ 동시에 13병단은 단지 4개 군만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인 38선에 배치된다면 전투력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방어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13병단이 38도선에 배치된 사실을 유엔군이 파악한다면, 유엔군은 인천보다는 남포나 함흥으로 상륙하여 13병단과 북한군의 철수로를 차단하려 했을 것이다.⁵⁴⁾ 그래서 모택동은 13병단을 조기에 투입하는 대신에 김일성에게 축차적인 지연전⁵⁵⁾을 실시하여 작전휴지기간을 가지고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대비하라고 조언을 했던 것이다.

그 대신 모택동은 유엔군과의 결전의 장소를 중공군의 전술에 유리한 북부 산악지역으로 선택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중부 지역은 대부분 그 폭이 좁아서 중공군은 자신들의 특기인 운동전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을 뿐

52) 쑤이, 데이빗, 앞의 논문(41호), p. 220.

53) 오규열, 앞의 책, pp. 134-141. 실제로 8월 13일에 열린 선양회의에서 “동북변방군은 1950년 9월 중 언제든지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8월에 모든 전투준비를 마친다”라는 결정이 났지만, 13병단 사령부는 장비와 교육훈련의 부족으로 참전 준비기간을 9월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보고서를 8월 15일에 모택동에게 제출한 상태였다.

54) 위의 논문, p. 221. 이 내용은 쑤이 박사가 한국전쟁 당시 39군 사령관이었던 오신천(吳信泉)을 인터뷰한 것이다.

55) 김정필, 앞의 책, p. 222. 축차 진지 상에서의 지연전(Delay from Successive Positions)은 가용부대가 부족하여 2개 이상의 지연진지를 동시에 점령할 수 없을 때 여러 개의 지연진지를 축차적으로 점령하면서 지연전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만 아니라 제공권과 제해권을 가진 유엔군의 공격에 의해서 저지당하기 쉽기 때문이었다.⁵⁶⁾ 따라서 13병단 사령부의 한국전쟁 투입의 최적 시기는 유엔군이 상륙한 후 38선 북쪽으로 깊숙이 진격했을 때라고 한 제안은 모택동이 13병단을 한반도로 더 빨리 투입시키지 못했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6. 결 론

결국 위의 절차에 의해 중공 지도부가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예측했다면 모택동이 이상조를 통해 김일성에게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유의하라고 했던 조언은 모택동 자신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다. 즉 모택동은 한국전쟁 초기 단계에서 자체 정보시스템(파견된 정보원의 활동,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 중공군에서 북한군으로 전환된 병력, 통신 채널을 통해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도 구상했던 것이다.

이처럼 중공 지도부는 북한군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한 시점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군사작전과 같은 수준의 정보수집절차를 거쳐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예측한 것이다. 따라서 중공 지도부의 인천상륙작전 예측을 단순히 공산주의에서 흔히 보이는 신격화 현상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중공 지도부의 인천상륙작전 예측과정은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국민당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대장정 및 다섯 차례

에 걸친 초공전 등 대규모 기동전을 경험한 중공 지도부의 노련함과 적극적인 정보수집활동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9. 3. 31, 심사수정일 : 2009. 5. 14, 게재확정일 : 2009. 6. 11)

주제어 : 중공 지도부, 중공군(13병단), 유엔군의 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작전한계점, 마오, 김일성, 신격화현상, 정보수집활동

56)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New York : MacMillan, 1960), p. 134. Whiting은 “한반도의 신안주-홍남 라인 남부는 좁아서 미군이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중공군의 활동을 저지하여 중공군의 전통적인 기동작전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Government's Prediction Process of the *Incheon*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Cho, Sang-keun

As soon as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Chinese Government decided to deploy its Army near the *Yalu (Amnokgang)* River in order to cope with emergency situation. Especially, the Chinese Government was concerned that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suddenly collapsed by the UN Forces' counterattack because the NKPA started to reach the culminating point.

As a result of that, the Chinese Government developed intelligence activities in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and Tokyo to judge the intervention time of the Chinese Communist Forces(CCF). So, some Chinese agents were able to obtain information about the UN Forces'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It was possible that they closely reconnoitered the NKPA's front line, the UN Forces' Headquarter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got information from agents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UN Forces'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they embodied the UN Forces' landing area and size through the simulation and war-game.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UN Forces' landing area was *Incheon* and its time was in the middle of September.

Mao Ze-dong informed this result of *Kim Il-sung* and advised him to prepare for the UN Forces'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as well as changed the attack to the delaying. However, *Kim Il-sung*, who has already

occupied the 90% of the Korean Peninsula ignored *Mao's* advice and carried out the excessive attack. Finally, the NKPA was cut off its withdrawal routes and the Line of Communication(LOC) as well as annihilated its strengths by the *Incheon*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Thus, the Chinese Government's prediction was so accurately, so others couldn't easily believe it. However, its process was similar to the current intelligence processing and deducted by several channels and scientific simulation. Therefore, we shouldn't devaluate its prediction as deification phenomenon. Rather, we'd better consider its prediction as the result of active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and its military experience such as the long march and the anti-Japanese fight.

Key Words: Chinese Government, Chinese Communist Forces(CCF),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UN Forces' Amphibious Operations, *Incheon*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Culminating Point, *Mao Ze-dong*, *Kim Il-sung*, Deification Phenomenon, Information Gathering